<죽음으로 읽는 서양 근현대 철학사>

-장의준

제1강

***어느 대학생의 유서**

"[...] 힘들고 부끄러운 20 년이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만든 건 이 사회고, 저를 부끄럽게 만든 건 제 자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더 이상 힘들고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죽으면 안 된다." 엄마도 친구도 그러더군요. 하지만 이는 저더러 빨리 죽으라는 과격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저를 힘들게 만든 게 누구입니까. 이 사회,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남은 사람들'입니다.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 하고, 나를 괴롭힌 그들을 위해서 죽지 못하다니요.

또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비합리적인 일은 아닙니다. 이걸 주제로 쓴 글이 '글쓰기의 기초' 수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 제 유서에 써도 괜찮은 내용일 겁니다. 제가 아는 경우에 대해서, 자살은 삶의 고통이 죽음의 고통보다 클 때 일어납니다. 다분히 경제적인 사고의 소산입니다.

말이야 이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저를 너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보지는 말아 주십시오. 20년이나 세상에 꺾이지 않고 살 수 있던 건 저와 제 주위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아직 날갯짓 한 번 못 한 제가 아까워 잠실대교에서 발걸음을 돌렸고, 제가 떠나면 가슴 아파 할 동생과 친구들을 위해 옥상에서 내려온 게 수 차례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이 듭니다. 동시에 부끄럽기 까지 합니다. 제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만 꺾일 때도 됐습니다.

무엇이 저를 이리 힘들게 했을까요.

제가 일생동안 추구했던 가치는 합리입니다. 저는 합리를 논리 연산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어느 행위가 합리적이라 판단하는 것은 여러 논리에서 합리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합리는 저의 합리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비합리라고 재단할 수 있는가 하면 또 아닙니다. 그것들도 엄밀히 논리의 소산입니다. 먼저 태어난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 이 사회의 합리입니다. 제 개인적으론 비합리라 여길 수 있어도 사회에서는 그 비합리가 모범답안입니다.

저와는 너무도 다른 이 세상에서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

저는 금전두엽을 가지지도 못했으며,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전두엽 색깔이 아닌 수저 색깔이군요. [...]"

맛있는 걸 먹고 싶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목이 너무 말라 맥주를 찾았지만 필스너우르켈은 없고 기네스뿐이어서 관뒀습니다. 처갓집 양념치킨을 먹고 싶지만 먹으면 메탄올의 흡수 속도가 떨어질까 봐 먹지 못하겠네요.

혹시 제가 실패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눈을 잃게 되거든요. 오셔서 손이나 잡고 위로해 주십시오. 많이 힘들 겁니다.

제가 성공한다면 억지로라도 기뻐해 주세요. 저는 그토록 바라던 걸 이뤘고 고통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부조 좀 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동생 **이가 닭다리 하나나 더 뜯을 수 있게 해 주세요. [...]
마지막으론 감사를 전해야겠습니다. 우울증은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로 완화됩니다. 상담치료로썬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위로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도 없는 '다 잘 될 거야' 식의 위로는 오히려 독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증으로 괴로워 할 때 저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

이곳 저곳에 퍼뜨려 주세요...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살고 싶습니다."

저 학생에게 삶이란 너무 힘든 어떤 것이었고, 너무 큰 고통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살은 삶의 고통이 죽음의 고통보다 클 때 일어난다는, 즉 자살은 다분히 경제적인 사고의 소산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도 자살을 망설이며 버텨왔었다. 그러다가 문득 '이만 꺽일 때도 되었다'고 확신했고, 그 확신에서 비롯된 결단을 실행했다. 왜 그는 이제 자살할 때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는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질질 끌어오던 삶을 결정적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 요컨대, 자살에 관한 상념이 자살의 실행으로 옮겨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추정하건데, 그 이유는 그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지탱할 이유가, 즉 삶의 의미가 부재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와는 너무도 다른 이 세상에서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비록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이 세상이 그간 그가 추구해왔던 가치와, 즉 의미와 부합한다고 그가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든 살아남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가 "일생동안 추구했던 가치"는 "합리"였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는 그가 보기에는 '비합리'였다. 즉 "먼저 태어난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합리로서 통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그는 그 자신이 늦게 태어난 자이고, 가지지 못한 자, 즉 소위 말하는 흙수저이며, 따라서 힘없는 약자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서울에 소재한 명문대에 재학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학력만 갖고서는 사회 속에서 그가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을만큼의 생존의 조건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가 볼 때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수저의 색깔, 즉 집안에 돈이 있고 없음의 여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력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상황은 그의 합리성에 비춰 볼 때 비-합리적이었다. 결국, 나의 합리와 세상의 합리 간의 불일치는 그로 하여금 자신이 삶에 부여했던 의미가 혹은 가치가 이제는 무의미하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고, 바로 이것이 그가 고통스러운 삶을 더 이상 어렵게 지탱해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결심하게 되었던 이유이다.

그렇다. 문제는 의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미와 관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의미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내 삶이 사막처럼 황량하게 느껴질 때, 그것을 적셔줄 수 있는 의미라는 것은 힘들게, 그것도 매우 힘들게 구해져야만 하는 어떤 것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더 절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해보자면, 설령 여차저차해서 힘겹게 의미를 발견해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발견해 낸 의미와의 (의미있는 혹은 유의미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요컨대, 의미는 힘들다. 의미는 그것을 애타게 구하는 이를 그 애타함의 정도만큼이나 힘들게 한다.

누군가가 아주 힘겹게나마 결국 하나의 의미를 발견해내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의미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역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이 의미가 그저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또는 이 의미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이 의미는 여전히 내 삶을 지탱해줄 수 있을까? 저 학생을 자살로 이끌었던 의미와의 관계는 바로 이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이 발견해내었고, 힘겹게 그것과의 관계를 맺어왔던 자신의 삶의 의미, 즉 '합리'가 비합리적인 이 세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무의미한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왔을 테이고, 그러다가 자신의 의미가 무의미하다고 대답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대답의 결과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갔던 것이다.

카뮈(Albert Camus)는 <시지프의 신화 *Le mythe de Sisyphe*>에서 의미의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시지프가 받은 형벌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벌을 받는 자는 그 벌의 과정에 그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의미한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만 한다는 것! 여기에는 그 어떠한 희망의 가능성도 부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카뮈는 시지프가 부조리한(absurde) 영웅이라고 말한다. 희망 없는 무의미한 형벌을 받고 있는 시지프는 왜 영웅인가? 카뮈는 시지프가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진 바위를 굴리려고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즉 시지프가 다시 아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이 의식(conscience)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형벌의 조건에 대한 의식, 즉 형벌의 조건에 대한 생각이야말로 시지프의 고통을 완성시키는 동시에 시지프의 승리 역시 완성시킨다는 것이 카뮈의 주장이다. 왜 완성인가? 왜냐하면 부조리한 인간은 자기의 고통을 직시할 때(즉 의식할 때!) 모든 우상을 침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게 될 때, 시지프의 운명은 (우상에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다. 저 바위도 그 자신의 것이다. 저 바위를 굴려서 올린다는 행위도 자신의 것이다. 마찬가지로 형벌로 인한 모든 고통도 그 자신의 것이다. 즉 그는 이 모든 시련의 참된 '주인'인 것이다.

이제 의미의 무의미함을 깨달은 이의 예로 다시 돌아와 보자. 이전까지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었던 모든 의미들이 허상으로, 우상으로 밝혀진 시지프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여전히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카뮈에 의하면, 참으로 진정한 철학상의 문제는 단 한가지일 뿐인데, 그것은 바로 자살(suicide)의 문제이다. 즉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왜 자살이 철학의 근본 문제이어야만 하는가? 그에 의하면, 하나의 질문이 다른 질문보다 더 절실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질문이 야기하는 모든 행동들을

근거로 삼아야만 한다. 그런데 존재론에 관한 토론을 위해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 따라서 존재론적 문제는 적어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혹은 그 문제를 위해서 사람들이 죽은 적이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가? 카뮈에 의하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즉 자살의 문제이다. 요컨대,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 적지 않다는 것이다. 카뮈는 시지프가 생각을 하는 순간, 즉 의식을 갖는 순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지프적인 생각과 자살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자살은 삶이라는 고통, 삶이라는 형벌에 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과 더불어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살에는 수많은 표면상으로 드러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우울증,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채나 도박빚, 불치병, 생활고, 실연, 명예의 실추, 순간적 충동 등등. 하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이유들만이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계기가 결정적 구실을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누군가의 눈짓 하나가, 말 한마디가, 표정이, 몸짓이, 즉 가볍디 가벼운 일상 속 무신경함이나 무례, 또는 고작 비-매너 따위가 아직 유예 상태에 있었던 마지막 한 숨을, 마지막 낙담을, 어떤 이로부터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히 무거울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살아남은 우리가 누군가의 판단의 저울이 죽음 편으로 기울어졌던 마지막 순간을 정확히 추론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른다. 반면에, 카뮈에 의하면, 모든 자살 행위들에 있어서 공통된 어떤 것을 도출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데, 자살한다는 것은 곧 삶한테 패배했다는 것을, 삶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삶을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avouer)'이다. 물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삶을 계속해서 꾸려나가는 (카뮈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습관(habitude)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볼 경우, 자살을 실행한다는 것은 이전의 모든 습관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카뮈가 말하는 것처럼, "자의로 죽는다는 것은 이러한 습관의 하찮은(dérisoire) 특성을, 살아가야만 할 심원한 이유의 부재를, 이 일상적인 소란의 무분별한 특성을, 고통의 무익함을 이해해 버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Albert Camus, *Le mythe de Sisyphe. Essai sur l'absurde*, Paris, Gallimard, 1942, p. 18.)

이러한 깨달음, 즉 자신을 살아남게 해주었던 습관들의 무상함에 대한 갑작스러운 깨달음은 시지프가 형벌의 조건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 바로 그 순간에 상응한다. 카뮈는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을 의식의 깨어남에 비유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잠에서 깨워내는가? 카뮈에 의하면, 의식을 깨우는 것은 바로 '부조리의 감정(le sentiment de l'absurdité)'이다.

"무대 장치가 무너진다. 기상, 전차, 사무실이나 공장에서의 네 시간, 식사, 전차, 일하는 네 시간, 식사, 잠, 그리고 똑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러한 여정은 대부분의 시간동안 쉽사리 계속된다. 단지 어느 날, '왜(pourquoi)'라는 물음이 고개를 쳐들게 되고, 놀라움에 물든 이 권태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Camus, 위의 책, p. 27.)

권태 속에서 시작되는 것은 의식의 운동, 즉 시지프적 깨어남이다. 그리고 이러한 깨어남은

다시금 두 가지의 양자택일적인 귀결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일상이라는 무대로의) 복귀 또는 자살이다.

그렇다면 자살은 부조리의 *논리적* 귀결인가? 카뮈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다. 그가 볼 때, 부조리에 대한 대답은 긍정(자살)과 부정(일상의로의 복귀), 두 가지뿐이다. 즉 자살하거나 자살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의 대답 혹은 선택이라는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카뮈가 제안하는 것은 '가혹한 사고', 즉 '끝까지(jusqu'au bout)' 버텨내는 *논리적* 사고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라는 부사이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반면에, *끝까지*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뮈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문제는 과연 자살이 '끝까지(jusqu'au bout)' 논리적으로 사고한 결과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그런데 카뮈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은 부조리라는 한계 경험 속에서 '끝까지' 머무르는 가운데 '끝까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대신에 오히려 저 한계 경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지나치게 서두르고는 한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부조리 속에서 끝까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대신에 육체적 자살을 선택하거나 또는 부조리로부터의 도피를 위한 사고의 자살(즉 영원성에로의 비약)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뮈의 대답은 충분한가? 자살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자살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이라고 결론내리는 카뮈의 추론에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런데 카뮈는 자살의 문제를 매우 당연한 전제처럼 받아들이는 듯 보인다. 왜 카뮈는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에 관한 문제를 곧바로 자살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서 해석해내는 것일까? 누군가의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곧바로 그의 자살 여부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과연 자명한 일일까? 요컨대, 고통이 내 인생의 반영구적인 동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왜 반드시 자살 상념을 수반해야만 하는 것일까? '만약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으면, 자살의 선택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카뮈의 주장 속에는 어떤 과도한 도약이, 즉 비약이 있는 것은 아닐까?

카뮈가 분명히 인지하였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그의 글 속에서 그다지 강조되지는 않았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의 문제이다. 자살의 상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삶이 가치가 없다는 판단만으로는, 삶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듯이 보인다.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바로 삶이 주는 고통이다. 그리고 저 학생은 단순히 삶에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자살을 결심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에 의미마저 부여할 수 없기에 자살을 결심한 것이다.

일찍이 Queen께서는 <Bohemian Rhapsody>(1975)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다 :

"I sometime wish I'd never been born at all.(난 가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왜냐하면 삶은 고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죽음은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해장시켜 주는 어떤 것, 즉 꽤나 좋은 것으로 충분히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카뮈는 참으로 진정한 철학상의 문제는 단 한가지일 뿐인데, 그것은 바로 자살이며, 자살이라는 철학적 근본 문제야말로, 즉 인생이 살만한 가치(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저 학생은 자살이 샐행되는 경우는 '삶의 고통이 죽음의 고통보다 클 때'라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의미와 고통, 이 두 가지를 종합헤서 자살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의미)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다는 것은(카뮈) 저 학생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인생도 살만한 가치(의미)가 있는지'의 여부를, 즉 삶이라는 고통이 의미있는 고통인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저 학생의 이렇게 대답했다: 삶이라는 고통은 무의미한 고통이다. 그런데 삶이 무의미한 고통이라는 것은 곧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것이 자살을 택하는 모든 이들의 실제적인 이유이리라. 즉 고통스럽게 살아있어야만 할 아무런 뜻도, 이유도, 의미도, 의의도, 목적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정리해보자면, 자살 상념에 빠지기 위해, 그리고 자살을 결행하기 위해, 삶의 무의미도, 삶의 고통도 그것들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오직 이 둘이 함께 할 경우에만 삶은 '무의미한 고통'으로 다가오며, 그와 더불어 누군가는 삶의 바깥을 향해 떠날 것을 비로소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요컨대, 의미있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반면에, 무의미한 고통은 우리를 그 바깥으로, 즉 죽음의 영역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삶은 어차피 고통이 아니던가? 그런데 만약 삶 자체가 고통이라면, 문제는 의미이다. 자살하느냐 마느냐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 서있는 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의미의 문제인 것이다.

대개의 경우, 철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의미에 민감한 사람들이며, 또 의미에 목마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강의에서 몇몇 (근현대)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죽음의 의미를 다루게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또는 적어도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의 의미를 (*끝까지*jusqu'au bout *철학적으로*) 찾고자 한다.

***데카르트의 경우**

육체와 정신의 이원론을 갱신한 데카르트(René Descartes)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를 통해 전수된 플라톤주의의 전통 속에 위치한다. 데카르트는 두 가지의 실체를 인정하는데, 그것은 사유 실체(res cogitans)와 연장 실체(res extensa)이다.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사유 실체로서의 정신은 비물질적이며 항상 하나인 반면에, 연장 실체로서의 육체는 공간 속에서 연장하며 부분들로 분할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사유 실체와 연장 실체가 서로 완전히 상이한 것들로서 서로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따라서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상호작용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요컨대, 사유 실체와 연장 실체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실체(substance)'란 존재하기 위해 다른 어떠한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유 실체와 연장 실체는 그것들이 각각 존재하기 위해서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서로로부터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데카르에 의하면 인간은 상이한 두 가지 실체의 영역들 모두에 속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만일 인간이 영혼인 동시에 육체라면, 서로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그렇기에 서로 무관한 두 실체들이, 즉 서로 간에 독립된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서로 상이한 영역에 속하는 육체와 정신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데카르트는 '송과선(glande pinéale)' 가설을 제시했다. 바로 이러한 심신-상호작용설 덕분에 근대적 개인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자연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주체적 자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죽음은 순전히 육체적인 사건일 뿐이다. 인간은 영혼인 동시에 육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인간을 육체의 관점에서 볼 경우, 인간은 그저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육체의 죽음은 사실상 기계 장치의 종말을 의미할 뿐이다. 육체로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육체를 구성하는 일부분도 아닌 영혼은 언제나 비-물질적으로, 비-육체적으로, 비-공간적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육체의 죽음은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스피노자의 경우**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와 달리 영혼과 육체를 서로 상이한 두 개의 실체로 보지 않는 가운데 인간을 통일체로 간주한다. 그에 의하면 영혼과 육체는 이러한 하나로 통일된 *하나*의 실체의 두 가지 속성들 혹은 두 가지 표현들일 뿐이다. 스피노자는(Baruch de Spinoza)는 '실체'를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를 통해 파악되는 것, 즉 그 개념이 그 자신에 의해 형성되어야만 하며 다른 어떤 것의 개념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를 통해 파악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실존을 자신의 개념 속에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실체란 무한하게 많은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절대적인 통일체인데, 이러한 실체의 역량을 표현하는 각각의 양태들 역시 하나의 통일체이며, 이 양태들은 사유와 연장이라는 속성들 아래에서 때로는 사유하는 것으로서 때로는 연장된 것으로서 표현된다. 결국,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실체는 절대적 존재자로서의 신인데, 여기서 신이란 곧 각자가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하게 많은 무한한 속성들로 구성된 실체를 뜻한다. 이와 같이,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은 모든 사물의 근저나 배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모든 개체적 존재자들을 자체 내로 통합하고 포괄하는 일자 혹은 무한자, 즉 신이다.

그렇다면 사유 속성과 연장 속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둘 간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 왜냐하면 사유 속성과 연장 속성들은 각자 자신의 유(genre) 안에서 무한하며, 따라서 자신들과는 다른 어떤 속성들에 의해서도 제약되지 않는 자율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신과 육체는 하나의 통일체의 두 가지 각기 다른 속성들, 즉 사유 속성과 연장 속성에 각각 속하는 양태들이기에, 정신과 육체는 서로 간에 아무런 인과 관계나 상호 작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존재론적으로는 동일하다.

스피노자는 실체를 모든 사물의 근저나 배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모든 개체적 존재자들을 자체 내로 통합하고 포괄하는 자연으로서의 신이라고 이해하는 가운데, 인간을 비롯한 모든 개채적 존재자들을 하나의 통일체로 간주한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인간은 신(자연)의 속성인 사유의 양태와 연장의 양태이기에, 무한한 신의 유한한 분신이라고, 즉 자연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무한한 신의 유한한 분신이나 자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인간을 인간이게끔 해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구심점이나 응집력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스피노자에게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영혼 불멸에 대한 사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

다. 왜냐하면 모든 개별적 존재자들이 신 속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그 자체로 자신 속에서 존재하는 개별자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내가 죽음 이후에도 존속할 수 있다면, 이러한 존속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즉 나는 영생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바로 영생에 있어서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영혼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영혼이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가정에 따를 경우, 만일 누군가가 '나의' 영혼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이어야만 할 것이다. 이번에는 영혼이 나의 육체와는 다른 어떤 육체를 통해서 환생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즉 내가 새 육체를 통해서 환생하는 바로 그 순간 전생의 내 모든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전생의 기억과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은 곧 전생과 이번 생 간의 인격적 연속성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만일 누군가나 내게 "너는 1,000년 후에도 살아남아 있을 거니?"라고 묻는다면, 물론 나는 "그래"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계속해서 환생할 수만 있다면, 천년이 흐르든 만년이 흐르든 어느 누군가는 '나의' 영혼을 갖고 있을 테이고, 따라서 나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어느 누군가'는 현생의 내 모든 기억들을, 내 인격을, '장의준'을 절대로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삶의 목적, 기억, 감정들, 생활습관, 정서, 욕망 등을 놓고 볼 때. 저 '어느 누군가'는 '장의준'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어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의준'이다. 왜냐하면 '장의준'의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의 목적, 기억, 감정들, 생활습관, 정서, 욕망 등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그는 나와 아무런 공통점도, 유사성도 없다. 그렇다면(!), 만년이든 백만년이든 주구장창 환생을 한다고 해서 도대체 무엇이 중요할까? 환생이 지금 현생의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내 영혼이 환생을 통해서 존속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영혼이 한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혼이 *그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부터는* 나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중요한 가치도 찾아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영생에서 정말로 원하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살아있기만 하는 그러한 존속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동일한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속일 것이다.